

색채 감성의 위계 구조에 대한 탐구*

박 창 호†

전북대학교 언론심리학과

감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감성 요인들을 추출하는 데에 치중하여 왔으며, 감성의 내적 구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감성에 감각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있으며, 이들이 대상의 속성을 묘사하는 객관형용사와 경험자의 심리를 묘사하는 주관형용사에 각각 상응한다고 보았다. 국어학적 분류와 경험적 평정을 통해 최종 선별된 43 개의 객관형용사 군과 21 개의 주관형용사 군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여, 감각적 측면(객관형용사)의 다섯 요인과 정서적 측면(주관형용사)의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두 측면의 요인점수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감각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간의 위계 구조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감성의 정서적 측면은 여러 감각적 요인의 결합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객관형용사, 주관형용사, 감성 요인, 위계 구조

* 이 논문은 200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교신저자: 박창호, 전북대학교 언론심리학과, 연구세부분야: 형태지각, 주의, 인지공학
E-mail: finnegan@chonbuk.ac.kr

색(color)은 주요한 시각 속성으로서, 특정한 정서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색감이라는 감각적 측면뿐만 아니라, 온냉감, 운동감, 및 청각적 느낌 등 여러 공감각적 경험을 일으킴으로써 복합적인 느낌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대상 혹은 대상의 속성과 관련하여 발생하지만, 단순 감각을 넘어서 감각과 정서가 복합된 경험과 이에 대한 평가를 ‘감성(感性, sensibility)’이라 한다(박창호, 2002; 다른 정의는 한광희, 2007 참조). 본고는 색채에 대한 감성 경험을 다루고자 하였다.

김창순(1998)은 모형 방 내부를 조명하여 만들어진 색 환경에 대해 의미 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 Osgood, Suci, & Tannenbaum, 1957)을 써서 12 개 형용사로부터 색채 감성의 세 요인을 추출하고, 이 세 요인이 Osgood 등의 평가(evaluation), 역능(potency), 활동(activity) 차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미자, 신수길, 한광희, 및 황상민(1998)은 모니터로 제시된 색에 대한 45 개 정서 형용사의 평정을 분석하여 색채 감성의 다섯 요인을 추출하고, 이 결과를 역시 Osgood 등의 세 차원으로 해석하였다. 최근에 박창호(2002)는 22 가지 색광(색 조명)을 평가하는 90 개의 색채 관련 감성 형용사(어구)를 분석하여, 온화감, 청아감, 화려감, 역동감, 무게감 등의 5 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처럼 감성의 연구에 형용사(어구)가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사용된 형용사의 특성에 대한 고찰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감성 형용사(표현) 중에는, ‘차가운’과 같이 객관적 사태를 묘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불쾌한’과 같이 매우 주관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랑스러운’이라는 표현은 ‘사랑’과 관련된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에는 사랑을 경험하는 주체의 역할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다. 이처럼 형용사가 묘사하는 경험의 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형용사들이 구분될 수 있다.

- (1) 그 여자는 기수의 말이 믿음직스러웠다.¹⁾
- (2) 그 여자의 허리가 가늘다.
- (3a) 나는 어려서부터 물이 무서웠다.

1) 유현경(1998)의 예문에서 주어를 수정함.

(3b) 무서운 마약에 젖는 사람이 시일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위의 예문 (1)에서, ‘믿음직스럽다’의 의미상의 경험자(주)는 주어(‘그 여자’)이고, ‘믿음직스럽다’는 주체가 경험하는 정서(심리)를 표현한다. 반면에, 예문 (2)에서 ‘가늘다’는 ‘그 여자의 허리’라는 의미상 대상의 속성(성상)을 묘사한다. 국어학에서는 형용사가 형용하는 의미역이 경험주(experiencer)이고, 경험주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심리상태, 판단 등을 서술하는 형용사를 ‘주관형용사’라고 하고, 형용사의 의미역이 대상(theme)이나 처소(location)이며, 이들의 성상이나 소재, 기준 등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객관형용사’라고 분류한다(유현경, 1998). 그리고 예문 (3a)와 (3b)에서 보듯이 어떤 형용사(‘무서운’)는 맥락에 따라 주관형용사로도 객관형용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다(김영희, 1988는 이를 중성 상태동사/형용사라고 불렀다).

객관형용사와 주관형용사의 구분은 국어학적 분석에 기초한 것이지만, 감성 경험의 구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성에는 대상의 속성을 묘사하는 감각적 성분과 경험자의 정서를 반영하는 정서적 성분이 합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성분은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 어느 한 쪽이 강조되고 다른 쪽은 간과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감성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즉, 감성의 감각적 측면을 더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형용사들과 정서적 측면을 각각 더 잘 대변하는 형용사들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형용사는 감성의 감각적 측면(혹은 성분)을 더 잘 묘사하며, 주관형용사는 감성의 정서적 측면(혹은 성분)을 더 잘 묘사한다고 짚지어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객관형용사와 주관형용사가 서로 관련되는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감성의 감각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관련되는 구조를 추출할 수 있다. 즉, ‘감성’이라는 복합 개념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는 수단으로서 국어학적 분석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어학 연구를 심리학 연구에 동원하는 예는 언어심리학 연구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동사의 의미에 암묵적으로 함축된 원인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아침하다’(동사)라는 행위의 원인(대체로, 행위자로 귀인)과 ‘비난하다’(동사)라는

행위의 원인(대체로, 대상자에 귀인)은 서로 다른 논항(의미역)에 주어진다는 것이다(권희령, 1988; 조명한 등, 2003). 이러한 구분은 동사의 의미에 따라 주어와 목적어의 의미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사의 의미로부터 (주어와 목적어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듯이, 형용사의 특성에서 감성의 인과관계나 적어도 위계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서술한 접근을 색채 감성 형용사를 중심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추출된 색채 감성 요인들은 상호 독립적인 요인(차원)들로서 묘사되어 왔다(김창순, 1998; 박미자 등, 1998; 박창호, 2002). 그런데 감성의 감각적 및 정서적 측면(성분)이 국어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서로 구분될 수 있다면, 색채 감성의 감각적 측면(충위)과 정서적 측면(충위)도 구분될 수 있으며, 두 측면(충위)의 관련성도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객관형용사와 주관형용사의 분류

유현경(1998)의 연구에 따르면 주관형용사에는 심리형용사(경험자의 내적 심리상태 묘사; 다시 대상심리형용사와 원인심리형용사로 구분), 감각형용사(자신 신체의 특정 부위가 느끼는 감각을 묘사), 판단형용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심리형용사가 색채 감성과 관련된다. 그리고 객관형용사에는 성상형용사, 장소교차형용사, 대칭형용사, 기준형용사, 소유형용사, 소재형용사, 가능형용사, 대응형용사, 태도형용사 등이 있는데, 색채 감성에 대해서는 주로 성상 형용사가 관련된다. 성상형용사는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이다.

본 연구는 색채 감성 형용사를 주관형용사와 객관형용사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용사 어휘들은 박창호(2002)에서 사용한 감성 어휘(일부 어구 포함)로서, 모두 90 개였다. 이 어휘들은 국문학 박사과정생의 도움을 받아, 객관형용사(53 개), 주관형용사(22 개), 및 중성형용사(15 개; 객관 혹은 주관 형용사로 구분이 곤란한 것)로 구별되었다(부록 1 참조).

그러나 객관형용사 및 주관형용사의 학술적인 분류가 일상적인 어법이나 통상적인 판단과 괴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즉 국어학적 분류도 의의가 있지만, 특정 어휘

가 사용되는 의미나 빈도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결과 보통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법은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색채 감성 어휘(형용사)의 분류를 경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감성 어휘에 대해 주어진 감성 어휘의 대상 편중성과 경험자 편중성을 평가하는 질문지를 만들었다. 지시(발췌)는 다음과 같았다. “아래 목록에 있는 단어(예, ‘찬란한’)들을 읽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신 다음, 그 표현이 경험 대상의 성질을 묘사하는 데에 비중을 둔 것인지, 아니면 경험(주체)자의 상태나 판단에 비중을 둔 것인지를 판정해 주십시오.” 이 질문지는 7 점 척도(1은 대상 중심, 7은 경험자 중심, 4는 중간 정도를 나타냄)로 만들어졌다. 질문지에 사용된 어휘 수는 원래 179 개였는데, 이 중 위에서 언급한 90 개가 나중에 사용되었다. 24 명의 대학생이 평정 기준을 충분히 설명 받은 후, 평정에 참가하였다.

평정 점수(부록 1)를 분석한 결과, 객관형용사와 주관형용사에 대한 경험적 평가 점수의 분포가 학술적 분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학술적 분류를 참고하여 경험적 분류의 기준을 결정하되, 가급적 불일치하는 항목(형용사) 수가 최소가 되도록 결정된 평정 점수 기준은 4.5점이었다. 4.5점 이하의 것은 객관형용사로, 그 이상의 것은 주관형용사를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적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국어학적 분류에 따른) 10 개의 객관형용사와 1 개의 주관형용사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중성형용사도 주, 객관 형용사로서의 분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43 개의 객관형용사, 21 개의 주관형용사가 선별되었다(총 64 개). 박창호(2002)의 연구에 사용된 90 개 어휘들(5 개 요인)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어휘들은 부록 1에서 음영으로 표시되었다. 박창호(2002) 연구의 요인 1 ~ 5 별로 해당 어휘 수와 탈락된 어휘 수의 비를 보면, 각각 6/30 (20%), 9/26 (35%), 8/20 (40%), 2/9 (22%), 1/5 (20%) 등으로 탈락한 어휘들이 특정 요인에 속하는 편중을 보이지 않았다.

색채 감성의 두 측면의 요인 구조

색채 감성 어휘에 대한 평가 자료는 박창호(2002)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박창호

표 1. 박창호(2002)에서 사용된 22 색의 이름과 Munsell 기호

번호	색이름	Munsell 기호	번호	색이름	Munsell 기호
1	빨간색	7.5R4/16	12	하늘색	10B6/12
2	주황색	2.5YR5/14	13	푸른색	5PB4/14
3	갈색	2.5YR3/8	14	파란색	5PB3/10
4	황색, 누런갈색	2.5Y5/8	15	보라색	2.5P3/10
5	노란색	5Y8.5/14	16	보라, 자주	7.5P5/14
6	녹갈색	2.5GY3/8	17	분홍색	2.5RP7/8
7	연두색	7.5GY7/12	18	자주색	2.5RP3/10
8	녹색	2.5G3/10	19	붉은자주색	7.5RP4/12
9	녹색, 초록색	10G4/16	20	흰색	N9.5
10	푸른청록	7.5BG5/14	21	회색	N6
11	청록색	2.5B3/10	22	검정색	N1

주. 색이름은 김영선(1998)에서 인용함. 쉽표로 구분되는 이름들은 함께 사용되는 이름들이 다. 같은 색이름이 색공간의 여러 색을 가리킬 때가 있으므로, 색이름이 중복되기도 한다.

의 자료 수집 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2 개의 색채(표 1)에 상응하는 색광을 액정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제시하였는데, 색채는 김영선(1998)의 연구를 참조하여 Munsell의 색채 공간에서 고르게 선정하였다. 색각이 정상인 25 명의 실험참가자들이 각각의 색채에 대해 90 개의 감성 어휘들(부록 1)을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한 감성 표현과 그 반대 표현이 양 극단에 있는 7 점 척도의 문항으로서 예컨대 ‘친근한 1-2-3-4-5-6-7 친근하지 않은’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요인분석

총 25 명의 실험 참가자가 22 색에 대해 7 점 척도의 90 개 (형용사)문항에 대해 평가한 자료들 중, 객관형용사 43 개와 주관형용사 21 개 어휘에 대해 별도의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SPSS 12.0이 사용되었다. 자료가 평정 척도이므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은 비가중 최소제곱법(Unweighted Least Squares)을 사용하였다 (이순목, 1995, p. 238). 요인 구조의 회전을 위해서는 Kaiser Normalization을 사용한 Varimax 법을 사용하였다.

객관형용사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최초 요인 행렬에서 고유치(eigenvalue)가 1.0이 넘는 요인이 7 개 추출되었으나, 이 중 2 개는 고유치가 1에 가까웠으며 이전 연구 결과(박창호, 2002)에서도 5 개 요인을 추출한 결과를 참조하여, 5 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5 개 요인의 총 설명량은 55.80%이었다. 요인 행렬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요인의 고유치와 설명 변량 비율은 표 2에 제시되었다.

객관형용사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요인 1은 화려하고 눈에 띄는 느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선명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뜻하는 의미로 '온화성'이라고 하였고, 요인 3은 자연스럽게 맑은 느낌을 가리키기 위해 '청정성'이라고 하였고, 요인 4는 정적이고 변화 없음을 가리켜 '단조성'으로, 요인 5는 '강렬성'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다섯 요인들과 관련 어휘들은 박창호 (2002)에서 추출한, '화려감', '온화감', '청아감', '역동감', 및 '무게감'과 상당 부분 상응하는 면이 있었다. 객관형용사의 요인 구조는 색채 감성 어휘 전체에서 추출된 요인 구조(박창호, 2002)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주관형용사의 경우 고유치가 1.0이 넘는 요인으로 4 개가 추출되었으나, 그 중 한 요인의 고유치가 1에 근접하였고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3 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들의 총 설명 변량은 53.88%이었다. 요인 행렬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요인의 고유치와 설명 변량 비율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추

표 2. 객관형용사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 요인 회전 후 5 개 요인의 고유치(eigen value), 변량 백분율, 및 누적 백분율

요인	고유치	변량 %	누적 %
1 선명성	6.257	14.55	14.55
2 온화성	6.027	14.02	28.57
3 청정성	4.974	11.57	40.13
4 단조성	3.400	7.91	48.04
5 강렬성	3.338	7.76	55.80

표 3. 주관형용사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 요인 회전 후 3 개 요인의 고유치, 변량 백분율, 및 누적 백분율

요인	고유치	변량 %	누적 %
1 소격감	4.736	22.55	22.55
2 매력감	3.293	15.68	38.23
3 세련감	3.286	15.65	53.88

출된 3 개 요인은 각각, ‘소격감’, ‘매력감’, 및 ‘세련감’으로 명명되었다. 첫째로 추출된 요인의 경우 ‘냉담한’에 ‘+’ 부호가, ‘친근한’에 ‘-’ 부호의 요인부하 계수가 붙어 있으므로, 소원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소격감’이라 명명하였다. 둘째 요인의 경우 매혹과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매력감’이라 하였고, 셋째 요인의 경우 상쾌하면서도 의젓한 느낌을 표시하기 위해 ‘세련감’이라 하였다.

색채 감성의 위계 구조

감성의 발생과 구조에 대한 뚜렷한 이론은 아직 없지만, 지각과 인지 과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대상의 여러 감각 속성이 처리되면서 두뇌에서 특정 감각 정보와 연합된(혹은 공변하는) 다른 일부 감각 정보들이 활성화(흥분)된다. 이런 정보의 활성화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접하거나 후속 처리되는 상위 수준에도 파급될 것이다. 상위 수준의 처리는 감각 속성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자의 기억이나 기대로부터도 조정될 수 있으며,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 여기에서 상위 수준이 감성의 정서적 측면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색채 감성의 감각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위계 관계로 파악될 수 있고, 이들과 객관형용사와 주관형용사가 각각 대응한다면, 객관형용사의 요인들과 주관형용사의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감성의 구조를 추측할 수 있다.

객관형용사와 주관형용사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객관형용사의 5 개 요인은 예측변인으로,

주관형용사의 3 개 요인은 종속변인으로 간주하였다. 각 종속변인의 예측에서 예측변인들이 보이는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면, 그 결과로 감각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회귀분석

객관형용사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얻은 요인점수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주관형용사의 요인분석에서 얻은 요인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SPSS 12.0이 사용되었다. 주관형용사의 세 요인을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하는 세 차례의 회귀분석에서, 예측변인의 설명변량에 대한 F 검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격감] $F(5, 534) = 337.83, p < .001$; [매력감] $F(5, 534) = 290.82, p < .001$; [세련감] $F(5, 534) = 309.70, p < .001$. 각 회귀분석에 투입된 예측변인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β)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총 15 개의 회귀계수 중 12 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그러나 ‘소격감’의 예측에 ‘단조성’의 회귀계수(-.012)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매력감’의 예측에 ‘청정성’(-.014)과 ‘강렬성’(.003)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p > .1$.

다섯 예측변인(객관형용사의 요인점수)이 종속변인(주관형용사의 요인점수)을 예측하는 데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β)의 부호도 흥미로운데, 종속변인에 따라 예측변인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주관형용사 요인에 따라 이들이 객관형용사 요인과 연결되는 패턴이 다양하였다. 특히 ‘선명성’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객관형용사 요인의 조합 및 그 부호는 제각각이다. 예컨대, ‘소격감 = 선명성 - 온화성 - 청정성 + 강렬성’으로, ‘매력감

표 4. 객관형용사 요인을 사용한 주관형용사 요인의 회귀분석에서 표준회귀계수(β)

주관 \ 객관	선명성	온화성	청정성	단조성	강렬성
소격감	.112*	-.701*	-.396*	-.012	.268*
매력감	.742*	.240*	-.014	-.295*	.003
세련감	.297*	-.270*	.724*	.091*	-.105*

* $p < .001$; 나머지 회귀계수는 $p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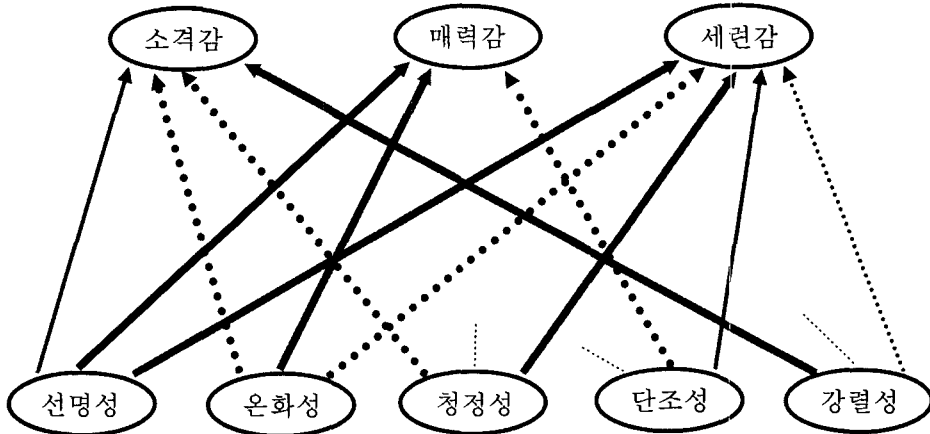


그림 1. 객관형용사 요인(아래)과 주관형용사 요인(위)의 위계 관계. 다중회귀분석(표 4)에서 관찰된 표준회귀계수(β)들 중 유의한 것만 고리로 표시되었다. 실선은 정적 부호를, 점선은 부정 부호를 나타내고, 굵은 선/점은 회귀계수 절대값이 .2 이상인 것을 나타낸다.

= 선명성 + 온화성 - 단조성'으로, '세련감 = 선명성 - 온화성 + 청정성 + 단조성 - 강렬성'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각 주관형용사 요인이 객관형용사 요인들의 차별적인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감성의 어떤 정서적 측면이 감각적 측면의 어떤 요인들의 결합과 연관되어 파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43 개의 객관(성상)형용사들로부터는 '선명성', '온화성', '청정성', '단조성', 및 '강렬성' 등의 5 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21 개의 주관(심리)형용사들로부터는 '소격감', '매력감', 및 '세련감' 등의 3 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주관형용사 요인들에 대한 객관형용사 요인들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양자 간의 위계 구조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주관형용사 요인은 다섯 개의 객관형용사 요인들의 서로 다른 조합에 의해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색채 감성의 감각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구분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각적 측면(객관형용사)의 다섯 요인들이 이전 결과(박창호, 2002)와 잘 상응하는 듯하여 요인 해석에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객관형용사 요인들과 주관형용사 요인들의 관계는 흥미로운데, 특히 정서적 측면의 감성을 분석적으로 이해(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발전한다면, 자극 속성들로부터 감각적 감성이 증개가 되어 정서적 감성 경험에 이르는 경로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자극 속성으로 의미를 예측한 연구로, Elliott & Tannenbaum, 1963 참조). 즉 다음과 같은 공식화가 가능할 것이다.

$$\text{정서적 감성} = f(\text{감각적 감성요인 1, 감각적 감성요인 2, ... , 감각적 감성요인 } n)$$

$$\text{감각적 감성} = g(\text{자극 속성 1, 자극 속성 2, ... , 자극 속성 } n)$$

본 연구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형용사의 분석으로부터 감성의 구조를 추론한다는 것이 가정적인데다가, 형용사의 분류 자체도 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객관형용사로 분류되는 단어도 문맥에 따라 주관형용사로서 쓰일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맥을 사용하면 형용사에 대한 분류가 편파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어법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지만, 분류가 애매한 일부 어휘들은 이용될 수 없었다. 또한 국어학적 분류와 일반인의 판단이 어긋나는 형용사들이 있었으나 감성 어휘들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객관형용사와 주관형용사의 경계를 충분히 띄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감성’ 개념이 복합적으로 정의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였는데, 본 연구는 국어학 연구를 심리학 연구에 응용하여 감성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평가, 역능, 활동 등 Osgood 등(1957)의 세 차원으로 색채 감성을 해석하고자 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색채 감성의 감각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라는 개념 구조를 모색할 수 있었다. 감성 개념이 인지과학, 감성과학/공학, 실험심리학 등에서 공식적으로 도입된 지도 제법 되었다. 본 연구가 감성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시도의 하나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희령 (1988). 관계절 문장 이해에 있어 의미 요인의 영향: 공통참조연결과 동사의 원인성의 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선 (1998). 한국어 기본 색이름과 색채공간 표상영역.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 (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 김창순 (1998). 색/조명환경 제시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KRISS-98-124-IR.
- 박미자, 신수길, 한광희, 황상민 (1998). 감성 측정을 위한 우리말 형용사의 의미구조. *감성과학*, 1 (2), 1-11.
- 박창호 (2002). 색광에 대한 감성 요인들. *인지과학*, 13 (3), 23-31.
-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1. 서울: 학지사.
- 조명환, 이정모, 김정오, 신현정, 이광오, 도경수, 이양, 이현진, 김영진, 김소영, 고성룡, 정혜선 (2003). *언어심리학*. 서울: 학지사.
- 한광희 (2007). *감성과학*(255-269 면). 박창호, 박호완, 김성일, 김영진, 김진우, 이견효, 이재식, 이종구, 한광희, 황상민 (저), *인지공학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Elliott, L. L., & Tannenbaum, P. H. (1963). Factor-structure of semantic differential responses to visual forms and prediction of factor-scores from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timulus shape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76, 589-597.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 차원고접수 : 2007. 11. 5

2 차원고접수 : 2007. 12. 24

최종게재승인 : 2008. 3. 10

(Abstract)

A Study on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Color Sensibility

ChangHo Park

Division of Mass Communications and Psychology

Previous studies, while investigating factors of sensibility, had rarely considered its internal structure.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sensibility had sensational aspects and emotional aspects and the former corresponded to objective adjectives, describing attributes of objects, and the latter to subjective adjectives, describing psychology of experiencers. Forty-three objective adjectives and 21 subjective adjectives describing color sensibility were selected both by a linguistic criterion and an empirical evaluation. Factor analysis on semantic differential responses to these two groups of adjectives resulted in 5 sensational factors and 3 emotional factors of color sensibility respectively. Hierarchical structure was derived by regressing emotional factor scores on sensational factor scores. In consequence, emotional aspects were interpreted by different combinations of sensational factors.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objective adjective, subjective adjective, sensibility factors, hierarchical structure

부록 1. 90개의 어휘에 대한 대상-경험자 평정 점수(N=2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객관 형용사	가벼운	2.42	1.41	객관 형용사 (계속)	투박한	3.75	1.80
	강렬한	2.79	1.79		평화로운	5.38	1.61
	거친	3.62	2.00		포근한	3.83	1.90
	고급스러운	4.04	1.99		풍부한	4.54	1.77
	근적거리는	4.50	1.93		화려한	2.54	1.64
	넓은	4.33	2.24		화사한	2.75	1.85
	다가오는	3.83	2.39		환상적인	4.50	2.21
	단조로운	3.29	1.68		희망적인	4.83	1.66
	담백한	4.00	2.28		귀여운	4.12	2.09
	더운	3.83	2.01		기분 좋은	6.12	1.03
	도시적인	4.88	1.90		냉담한	4.67	1.88
	돋보이는	3.50	2.04		넉넉한	5.17	1.86
	동적인	3.88	2.23		도도한	4.75	1.89
	따뜻한	3.00	1.77		매혹적인	4.83	1.76
	딱딱한	3.00	2.00		의기양양한	5.25	1.65
	밝은	2.21	1.25	의젓한	5.21	1.61	
	매끈한	3.75	1.87	자비로운	5.54	1.72	
	먹음직한	4.96	2.16	친박한	4.96	2.12	
	멀어지는	4.00	2.25	친근한	5.04	1.85	
	무거운	3.29	2.07	편안한	5.21	1.72	
	밝은	2.33	1.86	호감이 가는	5.62	1.74	
	부드러운	3.46	2.02	담담한	5.38	2.06	
	산뜻한	3.29	1.68	불쾌한	5.71	1.54	
	선명한	2.21	1.67	상쾌한	4.83	1.63	
	섬세한	4.88	1.65	심뜩한	5.12	2.19	
	시원한	2.67	1.81	어색한	5.75	1.26	
	싸구려 같은	4.54	1.93	우울한	5.46	1.98	
	자기자기한	3.75	1.80	지루한	5.54	1.67	
	안정된	4.04	1.85	허무한	6.25	1.33	
	어두운	2.00	1.41	황홀한	4.50	1.98	
엄숙한	4.12	2.03	개성적인	5.67	1.58		
연한	2.25	1.42	단정한	4.42	1.74		
위험한	4.67	2.24	무딘	3.71	2.14		
음침한	3.83	1.97	분위기가 좋은	5.29	1.71		
이국적인	4.88	1.96	사치스러운	4.50	2.27		
자연스러운	4.20	1.78	산만한	3.75	2.11		
짧은	4.33	1.88	서정적인	5.33	1.71		
정격인	3.54	2.11	섹시한	5.08	1.93		
젖은	3.92	1.89	순수한	4.25	2.05		
중후한	5.04	1.63	에쁜	4.04	2.10		
지저분한	3.38	2.08	우아한	4.21	1.74		
진한	1.79	1.44	저적인	5.71	1.40		
차가운	2.12	1.45	촌스러운	4.67	1.71		
차분한	4.17	1.79	평범한	4.75	1.70		
탁한	2.21	1.35	협한	4.08	1.91		

주. 음영 표시가 된 단어는 선택되지 않았다.

부록 2. 객관험용사의 요인 행렬

	요인				
	1	2	3	4	5
돌보이는	.696	.104	-.044	-.309	.090
넓은	-.695	-.066	-.258	.128	.090
화려한	.683	.333	-.327	-.247	-.019
투박한	-.633	.062	-.099	.117	.162
고급스러운	.630	-.062	.149	.296	.090
환상적인	.603	.228	-.087	-.149	.001
지저분한	-.592	-.019	-.439	-.108	.125
화사한	.581	.470	-.020	-.207	-.189
선명한	.555	.128	.379	-.261	.056
매끈한	.552	.059	.259	-.046	-.138
탁한	-.522	-.227	-.413	.124	.268
짧은	.482	.060	.332	-.413	-.101
밝은	.463	.423	.332	-.265	-.398
따뜻한	.084	.856	-.070	-.048	-.141
차가운	.075	-.826	.112	.006	.135
포근한	.099	.712	.347	.079	-.192
부드러운	.154	.647	.248	.110	-.378
아기자기한	.148	.647	.178	-.093	-.257
더운	-.160	.576	-.410	-.076	.136
다가오는	.164	.488	.304	-.186	-.049
거친	-.303	-.465	-.264	-.195	.406
멀어지는	-.139	-.464	-.192	.182	.001
어두운	-.371	-.454	-.301	.247	.442
음침한	-.334	-.417	-.394	.156	.400
딱딱한	-.060	-.305	-.035	.093	.241
젖은	-.106	-.277	.033	.114	.099
안정된	-.017	.149	.689	.375	-.024
자연스러운	.078	.227	.676	.030	-.174
맑은	.450	.113	.660	-.074	-.316
시원한	.293	-.487	.579	-.203	-.141
산뜻한	.522	.159	.567	-.129	-.276
끈적거리는	-.211	.064	-.541	-.096	.145
담백한	-.037	.208	.487	.286	-.183
정적인	-.139	-.021	.052	.784	-.003
동적인	.204	.116	.068	-.745	.058
차분한	.022	-.281	.480	.606	.051
단조로운	-.232	-.185	.259	.440	-.002
엄숙한	-.167	-.428	.129	.429	.365
진한	.087	-.149	-.111	-.110	.719
연한	.047	.290	.256	.156	-.645
가벼운	.290	.316	.204	-.215	-.566
무거운	-.387	-.374	-.229	.219	.507
강렬한	.383	.009	-.264	-.365	.387

부록 3. 주관형용사의 요인 행렬

	요인		
	1	2	3
냉담한	.781	-.242	.210
편안한	-.717	-.026	.441
자비로운	-.689	.112	.237
섬뜩한	.656	-.005	-.289
친근한	-.638	.171	.433
넉넉한	-.604	.192	.129
기분 좋은	-.573	.399	.528
도도한	.568	.256	.135
허무한	.511	-.362	-.198
우울한	.508	-.484	-.076
매혹적인	-.035	.772	-.035
황홀한	-.107	.734	-.123
지루한	.133	-.580	-.287
호감이 가는	-.299	.546	.504
답답한	.351	-.507	-.463
의기양양한	.051	.479	.243
상쾌한	-.249	.365	.693
천박한	.138	-.023	-.637
불쾌한	.473	-.345	-.567
의젓한	.050	-.042	.531
어색한	.462	-.233	-.497